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 권태산 목사, 엘바인침례교회 제5대 담임목사로 취임

엘바인침례교회는 지난 27일 제5대 권태산 담임목사 취임 및 명예권사 추대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 부흥의 힘찬 도약을 알렸다. 이날 김경순, 김민자, 박옥자, 임청자 씨가 명예권사로 추대됐다.



엘바인침례교회 제5대 담임 목사 취임 감사예배에서 감사인사를 전하는 권태산 목사 ©기독일보

권태산 목사는 감사 인사에서 엘바인침례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권 목사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엘바인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며 "엘바인침례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제가 목회를 다하는 순간까지 넘어서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취임 감사예배는 최국헌 목사(미주 남침례회 남가주 지방회 부회장)의 인도로 민승배 목사(미

주 남침례회 남가주 지방회 총무)의 기도예 이어 장요셉 목사(달라스 빛과 소금의 교회 원로 목사)가 "에벤에셀 하나님" (역적이 있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복음 증거에 담대함이 있는 귀한 목사님이다. 권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쓰는 엘바인침례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에 이어 이기철 목사(터스틴 제일침례교회 은퇴 목사)가 서약 및 선포를 인도했으며 한중호 목사(전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총회장)와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권면했다. 축사는 김영하 목사(미주 남침례회 남가주 지방회 회장)와 빅터 차시리소본 목사(남침례회 OC 선교 디렉터), 강승수 목사(미주 남침례회 남가주 지방회 총무)가 전했다.

또 김경도 목사(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총회장)와 고석희 목사(한인세계선교협회의회, KWMC 상임의장), 이영선 목사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상명 목사(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김형민 목사(텍사스 주총회), 김재영 목사(남가주 제자목자회), 박광철 목사(조이펠로 침교회), 고태형 목사(선한목자 장로교회), 김인철 목사(오렌지 가나안교회), 김선의 목사(포월톤 한인제일 장로교회), 조혜련 집사(개그우먼), 배우 성지루 씨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꿈이 있는 자유 정종원 목사가 특별 찬양 "소원"으로 자리를 빛냈으며, 고원실 은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권태산 목사는 미주리 사우스웨스트 침례대학교에 학사 학위를 받았고,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달라스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빛과 소금의 교회, 조이 펠로십 교회, 남가주새누리 교회, 하나님의 꿈의 교회, 올림픽교회, Rese 교회에서 사역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 평강교회, 임직예배 드리고 7명 직분자 세위

평강교회(담임 이상기 목사)는 지난 27일 임직예배를 총 7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최기용, 임단, 김은성 집사가 시무장로로, 최종숙, 임다나, 김현주, 민인자 집사가 권사로 임직했다. 또한 오랜 기간 헌신해온 이상우 장로는 원로장로로 추대됐다.

이날 예배는 송금관 목사의 인도로 박현동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미주총회, 서부 아메리카노회 서기)가 기도한 후, 이

상기 목사가 "금 면류관을 쓴 이 십사 장로들"(계 4:10-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상기 목사는 "임직 받은 모두의 섬김과 충성과 헌신을 통해 하늘에서 금 면류관을 다 얻는 종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평강교회는 글렌데일 이글락 인근 요크 블로버드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다가 2019년 1월 31일, 사우스 파사데나 현 예배당

을 매입 후 같은 해 4월 28일 첫 예배를 드렸다.

이상기 목사는 "평강교회는 LA한인타운에서 약 15분 거리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전원도시 사우스파사데나(South Pasadena)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며 "말씀이 충만한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은 교회,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발돋움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평강교회 임직예배 기념촬영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http://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고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들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제공합니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한기홍 담임목사**

#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

"고난의 유익"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71)

2022. 4. 11(월)~15(금) 새벽 5:30, 16(토) 새벽 6:00  
장소 :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Holy Week

 4/11(월) 5:3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4/12(화) 5:30am 강사: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4/13(수) 5:30am 강사: 이종용 목사 (토렌스 코너스톤교회 담임)	 4/14(목) 5:30am 강사: 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교회 담임)	 4/15(금) 5:30am 강사: 심상은 목사 (OC갈보리 선교교회 담임)	 4/16(토) 6:00am 강사: 이서 목사 (미주비전교회 담임)
---	--	---	---	---	--

주일 예배 :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EM 예배 : 1부: 9:20am, 2부: 11:30am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 “팬데믹 이후 교회, 사고의 전환과 모성적 리더십 갖춰야”

“변화는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진리된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방법은 변화돼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의 진보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 않다면 변해야 합니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지난 28일, ANC 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주최한 공개 강좌에서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했다.

“변화의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강좌에서 권준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모성적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위기과 도전 앞에 교회 본질 회복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교회 다움’을 추구하는 사고의 전환이



“변화의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공개 강좌 참석자 기념촬영

필요하다고 했다.

권 목사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며 “온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선교하게 하신 선교의 도구이다. 교회는 대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만 비대면 사역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변화하는 시대에 교회가 주목해야 할 가치로 ‘연결성’과 ‘기동성’, ‘유연성’을 꼽고, 선교에 대한 사고의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선교를 지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리적 경계와 관계없이 제자를 삼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다.

권 목사는 또 교회가 이웃과 사회에 서로를 돌보고 희생하며,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모성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 목사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친밀감과 영적 권위를 가진 온유한 예

수님의 리더십”이라며 “성도가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기쁨도 있지만, 한 영혼의 변화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어렵더라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며 “서로를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강좌를 주최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박성진 학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에 미주 한인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배우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호평했다.

김동욱 기자

## 플러신학교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심포지엄 개최



플러신학교 코리아센터(KSC)가 4월 6(수)부터 7일(목)까지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과 선교’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녹스 칼리지 송남순 교수, 웨스턴 신학교 예녹 완 교수, 예모리 대학교 헬렌 김 교수,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 최희안 교수, 하트포드 신학교 엘리슨 노튼 교수 등이 북미의 다양한 지역 신학자들이 모여 역사적, 성경적, 민족학적, 사회학적 관점으로

한인 이민 교회의 정체성 형성과 선교 방향에 대해 나누게 된다.

심포지엄은 플러 신학대학원 마크 래빌턴 총장의 환영 인사와 강준민 목사의 설교에 이어, 송남순 박사가 “북미한인 교회에서 밭짓기와 기독교 교육”, 예녹 완 박사가 “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선교: 상황적 접근 제안”, 헬렌 김 박사가 “한국 기독교와 한국 전쟁”, 최희안 박사가 “한인 이민 정체성과 아시아 이민자의 지위 사이에서:

4월 6(수)-7일(목)까지 북미지역 5명 신학자 강사로

한인이민교회의 리더십 재구축”, 엘리슨 노튼박사가 “이민과 미국의 회중: 이 시대의 동향과 이슈”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성경과 선교 역사의 디아스포라 교회 △한인 이민 교회의 여성 △이민 교회의 선교와 사역 △이민 교회의 2세대 교육 및 제자 양육이란 주제로 다양한 선택 강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이민 2세대의 케이스 스터디를 주제로 패널 토의도 진행된다.

KSC 김창환 학장은 “미주 한인사회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한인 이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성경적, 이론적, 실천적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했다”며 “주제별 강의, 사례발표, 전체 토의 등 다채로운 순서를 통해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미주 한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동욱 기자

##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4회 정기노회 개최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4회 정기노회

세계예수교장로회(WPC) LA 중앙노회가 지난 22일, 조이풀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제4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김성권 부노회장(필렌 성은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앤드류 정 목사(시애틀 샘솟는 교회)의 기도와 노명선 선교사(Kadosh 대표)의 성경봉독에 이어, 노명구 목사(하나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롬8: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에 이어 노회장 김정호 목사의 집례로 오후 6:53-58절을 봉독하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설교 한 후, 성찬예식을 집례하였다.

3부 회무처리에서는 교회 개척과 교회 이전에 대한 지속적 지원, 페트라 대학교와 노회의

장학사업 및 선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무 처리 후에는 신관호 목사가 주관해 생명신학을 주제로 포럼 시간을 가졌다.

한편 LA 중앙노회는 노회장 김정호 목사(조이풀교회), 부노회장 김성권 목사(필렌 성은교회), 서기 김경식 목사(한마음선교회), 회계 노명구 목사(하나교회), 회록 서기 노명선 선교사(Kadosh)가 임원으로 섬기고 있다.

LA 중앙노회는 오는 7월 11일(월) 오전 11시, 강도사 고시와 목사고시를 진행한다. 고시 원서접수는 2022년 5월 6일(금) 오후 5시까지이다.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총회 인준으로 I-20를 발급해 주는 페트라 대학교(Petra University)가 있다.

문의: 213-909-3579

## 기쁜우리교회 창립 5주년 기념·성전 이전 감사예배 및 은퇴식

# 초대합니다

일시: 2022년 4월 3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기쁜우리교회 본당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귀하의 삶과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우리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쁨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저희를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은퇴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귀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초청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우리교회 믿음의 가족 일동

행사안내 기념품 증정, 식사 제공, 오픈하우스(교회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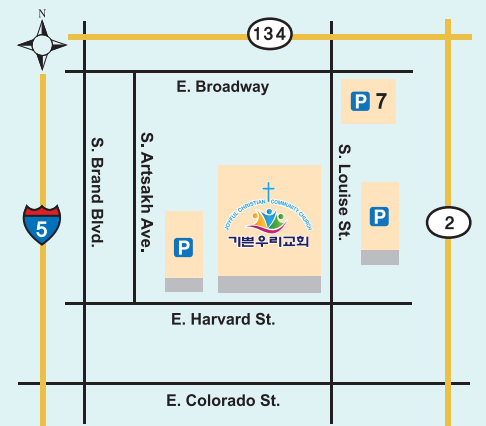
### 청빙/광고

- 본교회 부목사님(팻타임)으로 섬기실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2통)
- 본교회 예배 찬양을 위한 소프라노 솔리스트를 청빙합니다. -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1통)
- 서류 보내실 이메일 주소: search@joyfulccc.org



### 은퇴자 명단

- 장 로: 정지일  
안수집사: 김경선, 김세기  
사무권사: 김난훈, 박옥자  
정경희, 홍승하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el. (818) 662-0400

# “우크라이나에 희망과 위로를 전합시다!”

###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기도회 및 난민 돕기 캠페인 진행

우크라이나 돕기 운동 본부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금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러시아의 무차별 침공으로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남가주 교계가 “우크라이나 돕기 운동 본부”(공동대표대회장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 준비위 원장 강순영 목사) 결성하고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

우크라이나 돕기 운동 본부는 4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초교과 특별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침공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을 기원한다.

우크라이나 돕기 운동 본부는 이날 기도회에서 우크라이나 정



우크라이나 돕기 운동 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강태광 목사가 현지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기독일보

부 대표에게 그동안 일부 기독교 기관 등을 통해 모아진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주 전 지역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의 날’을 확산시키며, 평화 기도 운동과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송정명 목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전 세계

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난민이 1천만명 이상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대참사도 예견되고 있다”며 “매일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폭격으로 희생되는 등 전쟁으로 고통 받는 난민들을 위해 남가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고 모금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강태광 목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6.25 전쟁의 잣더미에서 전 세계인들의 기도와 원조, 사랑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당당히 일어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할 때”라며 “부모와 생이별한 어린이들, 하루 아침

에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과부와 노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순영 목사는 “이미 많은 한인단체와 교회, 그리고 개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만 모든 한인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 우크라이나 돕기 운동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모금 운동에 전 남가주 한인교회와 한인회를 비롯한 전체 한인 단체와 한인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크라이나 돕기 성금은 ‘우크라이나 운동 본부’(Pay to : Holy City Movement, Memo란에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표시)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강순영 목사(310-995-3936)와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국장 김시온 목사(213-407-4569), 강태광 목사(323-578-7933)에게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 기쁜우리교회 창립 5주년 맞아 다채로운 사역 진행



클리닝 포 더 헝그리(Gleanings for the Hungry) 단기선교에 참여해 사역하는 기쁜우리교회 성도들

창립 5주년을 맞는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교회 이전과 함께 다채로운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쁜우리교회는 지난 2주간 우크라이나 특별헌금을 진행하고 1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또 3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클리닝 포 더 헝그리(Gleanings for the Hungry) 단기선교에 17명이 참여하며 금요일 사역을 통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다.

오는 4월 3일(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제5주년 창립 기념 예배 및 성전 이전 감사 예배 및 은퇴식 드리는 기쁜우리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4월 11일(월)~16일(토)까지는 매일 오전 6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한다.

4월 15일(금) 오전 6시와 오후 7시, 4월 16일(토) 오전 6시에는 탈북자 선교사인 주순영 선교사를 초청해 특별 간증 집회를 개최한다. 올해 부활절에는 글렌데일장로교회와 연합으로 부활절 주일예배를 드리며 문화와 인종을 넘어 주 안에 한 형제 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

기쁜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5주년을 맞는 기쁜우리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역과 세계 만방에 전하는데 힘쓰는 교회로 나아갈 것”이라며 “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몰아내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복음통일선교도서의 편지자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세수교회), 주성영목사(장신대 영예교회), 이종희목사(에스케이교회), 송정명목사(복음선교대 공동대표), 권준희목사(중앙침례교회), 신명진목사(동일교회), 유관기목사(새생명침례교회), 김관식목사(KCC공동대표)

\* 책의 목은 2000여부 배포로 주유분할 수 있습니다. \$20/원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을 몰아내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원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기쁜우리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창립 15 YEAR ANNIVERSARY 주년

동부사랑의교회

은퇴 및 임직 감사예배

2022.4.3(주일) 오후 4시

동부사랑의교회 사랑채플

장로임직 김대현 오홍주 최기열

안수집사 김백평 김홍철 이승택 이철지오 이종영 이희종 임기환 정성원 조 현 황인규

시무권사 김성원 김성희 김정아 안시영 이길선 이미경 이연경 이호순 장재연 최혜경 흥찬희 황출리

**동부사랑의교회**  
East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우영화 909) 590-3722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47

### “교회와 선교 단체의 협력 사역(1)”

오래전부터 선교에 대하여 교회와 선교 단체 간에 협력을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었고 좋은 사례들이 속속 나오게 되었다. 필자도 지난 25년간 목회자로서 건강하게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선교 단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지난 팬데믹 기간 중 2020년이 시작되면서 필자는 목회를 마감하고 직접 선교지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침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멕시코, 멕시코 지역)에서 선교사 청빙이 와서 노회의 파송을 받아 사역지로서 이사를 하였다. 그곳은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후원을 하며 함께 선교 동역을 한 곳이므로 낯설지 않아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많았다.

필자는 목회자와 선교사 관계에서 선교 사역에 관한 부분은 현지 선교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었다. 교우들에게도 현지에서는 목회자의 인도보다는 선교사의 안내를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교우들의 현지 방문과 선교지 후원 사역을 진행해 왔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작은 결론은 교회는 선교사와 그 사역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선교사는 파송 및 후원 교회에 대한 선교적 리더십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선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2년여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은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들 대부분은 느낄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부정적 영향 중 하나는 교회의 예배 모임이 흔들렸고, 대부분의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포기하면서 점차로 교회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심각한 교회 침체의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필자의 견해는 한국교회의 쇠퇴는 이미 2007년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순교 사건 때부터였다고 본다. 순교자와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대부분 교회들(목회자들)의 냉대와 비판적 반응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선교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몇 주 전 비전 스쿨이 열렸다. 아랍의 J국에서 P 선교사가 직접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공통으로 느끼는 현재 교회 현황을 생각하게 되었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2030 비전을 정해서 그때까지 한국 선교사 파송 10만 명 달성을 구호로 외쳤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정한 결정이나 구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믿는다. 한국 교회는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깬다. 공공연하게 여러 가지 세계 재앙 때문에 2030 비전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교회 대표들의 말들이 전해졌다. 2030 비전을 외쳤던 때는 한국 기독교인 수가 1천만 명을 넘는 시대였는데 지금의 현실은 500만 명이 될까 말까 하므로 비전 성취가 어렵겠다는 말을 필자도 들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참담한 현실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있고, 교회가 목숨 걸고 수행해야 할 선교를 교회들은 선택적 사항 정도로 곡해하고 후에 교회의 힘이 생기면 그때 가서 선교를 다시 하겠다는 목회자들의 비신앙적 생각들을 듣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

필자는 확신한다. 오히려 지금이 선교 부흥을 이끌 절호의 기회의 시대라는 것을. 하나님과 약속한 2030 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소수의 약속 이행자들을 동원 하셔서 반드시 그 이상의 열매로 이루어 주실 것을 필자는 확신한다. (계속)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⑥ “예수님의 사역 현장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 비로소 십자가와 고난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질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서남쪽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수 11:17; 12:7; 13:5)으로 불려졌습니다. 사실 바알갓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으로서 행운의 신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단 두 번 나타나는데 (마 16:13; 막 8:27), 두 곳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주전 20년경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주전 19년에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신전을 이곳에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 가이사라 빌립보(Caesarea Philippi)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분할 받은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Philip)이 바나야스에 그리스-로마형 도시를 건축하고 자신이 통치하던 빌립보 지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빌립 헤롯이 도시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한 이유는 로마가 유대 통치를 위해 세웠던 행정도시 가이사라(행10장)와 구별하기 위하여 빌립보라는 말을 첨가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세속 도시였습니다. 먼저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입니다.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받은 땅에 그의 아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였습니다. 이름도 로마 황제를 위해 가이사라라고 지었고, 빌립은 자기의 영광도 포기할 수 없어서 빌립보를 넣었습니다. 로마 황제 신전을 지어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둘째로 가이사라 빌립보를 세속 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각종 우상의 신전이 우글거리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시리아 바알(Syrian Baal) 신을 섬겼던 신전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한 동굴을 판(Pan)신(神) 출생지로 알려집니다.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건축되었고 그곳에 중요한 건물들 벽에 판신 숭배의 흔적이 남은 문헌자료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판신(Pan)신을 숭배한 흔적이 있습니다.

팬(Pan)신(神)을 포함한 이방신의 흔적이 많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고려할 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설명하는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등장하는 “음부의 권세(the gates of Hade)”라는 표현을 우상들의 권세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서지리학자 데이빗 패드

필드목사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고대 이방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도시라고 주장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아그립바가 로마의 네로(Nero)황제를 기리며 네로네아스(Nero-neas)라고 불렀고, 헤롯대왕의 증손자인 아그립바 2세(행 25장, 26장)시대에 단순한 로마 행정 도시가 아닌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듬뿍 담은 전형적인 로마 도시로 발전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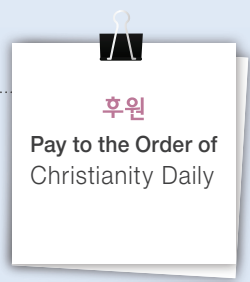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토 장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유대 땅을 침공한 티토 장군은 얼마 동안 이 도시에 머물면서 축제를 벌이며 아그립바 2세를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성안에 남아 있던 9만 7천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잔인하게 노예로 팔았고 그 유대인 노예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참혹하게 죽은 역사가 있습니다.

티토 장군에 점령당했던 가이사라 빌립보는 4~5세기경까지 기독교 공동체가 존속되었습니다. 하지만 5세기경에 큰 지진으로 도시는 다시 크게 파괴가 되었고, 7세기에 아랍 군대의 침공으로 기독교인들이 거의 몰살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967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판신(Pan 神) 신전과 헤롯왕의 궁궐이 발굴되어 성경에 있는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신상과 판신을 포함한 고대 이방신의 신상이 우글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나 고대 신들보다 뛰어난 참신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서 신앙고백을 근거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예수 부활하셨네!

##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11:25)

2022년 4월 17일(주일) 새벽 5:30  
동부사랑의교회 사랑채플(본당)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 주최: LA동부지역 교역자협의회

- 회장 : 우영화 목사(동부사랑의 교회)
- 총무 : 박선호 목사(늘푸른교회)
- 회계 : 송재호 목사(할렐루야한인교회)

# 한국 헤민병원 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서울동부지역 으뜸병원, 헤민병원

헤민병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큰 행복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강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668-4781**로 문의해 주세요.

# 故 정필도 목사 “주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사셨다”

### 수영로교회서 위로예배 드리며 고인 회상

지난 21일 82세를 일기로 별세한故 정필도 목사의 위로예배가, 그가 설립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22일 열렸다. 설교를 전한 수영로여자신학원장 이정삼 목사는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고, 무릎으로 목회하신 분”이라고 고인을 회고했다. 특히 개인적인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며 살았던 고인의 삶을 증거하며 그리움을 숨기지 못했다.

이 목사는 “회복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천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어른을 잃었다는 생각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몰려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1941년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태어난 목사님은 창신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 학교에 갈 때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오면서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셨다. 어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또

겹게 체험하신 분”이라고 했다.

이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작은 가게에서 장사하실 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 여러 가지를 놓고 파셨는데, 목사님은 어린 학생이었던 가게에서 팔아선 안 될 상품이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셨다. 먹고 살아야 되니 문을 닫지 않으시자, 집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다”고 했다.

이어 “그때 어머니의 요청에 창신교회 부목사님이 찾아왔는데도, 가게 문을 닫기 전에는 방문을 열지 않고 그냥 죽겠다고 하셨다더라”며 “어릴 때부터 이미 주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마음이 뿌리 깊이 내렸다. 결국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으시고 가정교사를 하시며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원래 목사님의 이름은 정필도가 아니었다. 반드시 도를 깨닫고 끝까지 전하리라는 뜻으로 개명을 하셨다”며 “군에



故 정필도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25일 수영로교회에서 드리지고 있다. ©수영로교회 영상 캡처

가서도 그곳을 복음으로 완전히 물들게 하리라는 위대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사셨다”고 했다.

이후 다섯 교회에서 청빙을 왔지만, 부산에 개척한 고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고 무릎으로 예배당을 짓고 무릎으로 목회를 했다고 한다. 이 목사는 “눈물이 채워지는 만큼 은혜가 채워진다는 말씀을 늘 하셨다”며 “모든 일을 시

작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그 다음에 움직이셨다”고 전했다.

또 “성도를 매우 사랑하셨다. 미운 성도가 있으면, 그저 입을 다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레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고 성도들에게 늘 전하셨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사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사신 목사님이 지금은 주님의 품 안에서 영광 중에 계시길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고인은 올해 2월 24일부터 급성폐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송경호 기자

## “JMS 정명석, 출소 후에도 여신도 성폭행” 폭로

여성 신도들에 대한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했던 JMS 교주 정명석 씨가 또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들과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들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 씨를 상습준강간·상습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참석한 영국 국적의 입 메이플 잉 퉁 후엔(Yip Maple Ying Tung Huen, 29) 씨는 18살이던 2011년 홍콩에서 신도가 됐고, 정 씨가 출소한 2018년 충남 금산에 소재한 JMS 수련원에서 2021년 겨울까지 정 씨에게서 상습적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7회, 유사간음 6회, 간음 2회 등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상하고 혼란스러워



영국 국적의 메이플(Maple) 씨가 증언하고 있다. 변호사에 의하면, 그가 JMS 정명석 씨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는 2018년 겨울부터 2021년 9월까지 추행 7회, 유사간음 6회, 간음 2회 등 모두 15차례다. 모두 정 씨의 출소 이후 발생한 일이다. 메이플 씨는 방역을 위해 마스크만 쓰고,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송경호 기자

도 믿음의 시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 자신을 오히려 설득했다”며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정명석은 메시아가 아니고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특히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나와서 고소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죽

기 전 하늘이 제게 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주 국적의 다른 피해자인 A씨(30)는 영상으로 증언했다. 2014년 신도가 됐다는 A씨는 5차례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

장했다. 그녀는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메시아가 정말 이런 짓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나는 정말 신부가 된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A씨는 “이게(정 씨를 고소하는 것) 정의고 복수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순순히 지나가게 할 수 없었다. 결과에 대해 값을 치러야 한다”며 “JMS는 의로운 종교가 아니다. 실제 범죄자, 강간범을 지지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계속 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소 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들의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그 일을 경험치 않은 이들이 도저히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JMS 측은 이날 입장을 통해 기자회견에서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장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영 기자



## TALBOT SCHOOL OF THEOLOGY

#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mailto: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기도회 및 난민돕기

**피와 눈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에  
희망과 위로를  
선물합시다!!**



**후원을 원하시면 성시화로 보내 주세요**  
[Pay to: Holy City Movement]

▶ **일시:** 2022년 4월 1일 <금> 오후 7시30분

▶ **장소:**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주관** 우크라이나 돕기 운동본부
- 공동주관**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World Share USA, KACC  
청교도신앙회복운동, O.C. 교협, O.C. 목사회, O.C.장로협의회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 참여기관** 한인회, NKIA탈북자선교회, 세계기도모임(서부지부)
- 후원언론기관**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미주크리스찬신문, 크리스찬비전  
크리스찬위클리, 기독일보, 크리스찬헤럴드, 미주복음방송  
기독신문, [주간]사람과사회, CTSTV, CGNTV, CBSTV, CHTV
- 문의** 강순영 목사 (310)995-3936, 강태광 목사 (323)578-7933, 김시온 목사 (213)407-4569  
미주성시화운동본부 621 S Virgil Ave. #455 Los Angeles, CA 90005





# 부시-클린턴 전 대통령, 우크라이네 교회 방문... “미국은 자유 위해 연대할 것”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오른쪽)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왼쪽)이 시카고 우크라이나정교회를 방문했다. ©영상 캡처

미국의 두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 내 우크라이나계 교회를 찾아 초당적 연대감을 보여줬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부시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클린턴 전 대통령은 18일 시카고에 있는 ‘성 블로디미르/올하 우크라이나정교회’를 방문해 헌화한 소식을 개인 SNS에 게시했다.

이 교회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들의 공동체와 신앙을 상징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은 자유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연대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은 자유를 위한 투쟁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SNS 게시물에는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교회 밖에 서서 해바라기를 헌화한 뒤 묵념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영상은 미국이 1991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외교를 맺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꽃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상징한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이며, (국기의) 파란색과 노란색은 하늘과 밀밭은 형상화한 것”이라며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요새”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일했다”고 영상은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라며 “미국 정부와 국민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추구하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우리는 푸틴이 행사하는 독재적 횡포와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친구이자 민주주의 동맹국이며,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호소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나는 러시아의 이유 없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바 이든 대통령과 동맹국들,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이 선택한 전쟁은 30년간의 외교를 흐트러 놓고,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렸다”면서 “전 세계는 러시아의 뻔뻔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린턴은 지난 1993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부시는 2001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대통령직을 역임했다.

강혜진 기자

# 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입원... 프랭클린 그래함 “회복 기도해달라”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독감과 유사한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미국 연방 대법관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미국인 대법관이며, 6명의 보수와 대법관 중 한 명이다.

올해로 73세인 그는 13명의 대법관 중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 고등법원에 따르면, 토머스는 지난 18일 저녁에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겪은 후, 워싱턴 D.C.에 있는 시블리 메모리얼 병원에 입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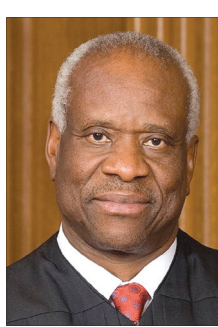
법원은 20일 보도자료에 “그는 검사 후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정맥주 사용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증상이 완화되어 편히 쉬고 있고, 하루나 이틀 안에 퇴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는 “토머스 판사는 구두변론 브리핑, 녹취록 및 오디오를 바탕으로 그가 출석하지 않은 모든 사건에 대한 검토와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AP 통신은 토머스 대법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그래함 목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금요일에 감염으로 입원한 미국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의 빠른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전했다.

미국 생명 옹호 단체인 ‘라이브액션’(Live Action) 창립자이자 사장이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대법관 ©위키피디아

릴라 로즈도 “토머스 판사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트위터에 통해 밝혔다.

토머스 대법관은 1992년 사생활의 관리에 낙태권을 포함시킨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적 가치를 수호 해왔다.

그의 표결은 올해 6월에 있을 미시시피주 낙태 금지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종 판결은 오는 7월에 나온다.

그는 2020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평등한 창조: 클래런스 토머스 본인의 말’을 통해 자신의 선택이 “개인적 견해가 아닌 헌법 조문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토머스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정책 선호도와 매우 강하게 충돌하는 것들이 있다. 특히 (대법관으로서) 초기에는 이러한 일이 매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내 생각을 가지고 (판결에) 손을 많이 대고 ‘정말 슬퍼요’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건 판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할 일을 하고 혼자 가서 울어야 한다. 하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com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 오렌지카운티 지역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churchca@gmail.co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mc.org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라자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폴란드 침례교회 과반수,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참여”

폴란드 침례교회 110곳 중 60% 이상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필요를 돕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극적인 방식으로 부응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텍사스침례교인(Texas Baptist Men, TBM)은 폴란드의 남동부와 북부, 벨라루스와의 국경 근처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는 침례교 자원봉사자들의 구호 노력들을 상세히 전했다.

첼름침례교회의 교인들은 폴란드, 라트비아,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봉사자들과 함께 난민들에게 무료 음식과 음료, 샤워 시설과 잠잘 곳을 마련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준비했다.

마렉 글로렉 폴란드 침례교연합 회장인 TBM에 “우리는 폴란드 전역에 사랑과 관용의 운동을 보고 있다.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문을 열고 팔을 벌려 있다”면서 “이것이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하라고 당부하신 일이다. 폴란드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매일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첼름의 한 창고에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전역의 보호소만큼이나 빠르게 구호품이 들어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후에도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폴란드 북부에서는 침례교인들이 오래된 캠프장에 단열재와 에어컨, 난방과 전기 시설, 침대를 설치하여 난민 수용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사전 우크라이나 난민 46명을 수용한 이곳은 이제 60명까지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벨라루스 국경 근처의 한 침례교회는 침공의 증가 속에서도 약 50명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며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선봉에는 10년 전, 폴란드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 나타샤와 세르게이 씨가 있다.

세르게이는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로 이주하는지 이유를 몰랐다”면서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나타샤는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부모에게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걸어 생사를 확인한 뒤, 난민들을 돕기 위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나타샤는 TBM에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본다. 그들의 눈에선 눈물이 보인다. 남겨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염려가 보인다”라며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는지도



2022년 3월 폴란드 비알리스토크 외곽에 위치한 보호소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John Hall/ Texas Baptist Men

알 수 있다. 내가 그들을 껴안아 주면 그들은 안전하다는 행복에 겨워 몸을 댄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한 일은 작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를 비롯한 루마니아, 헝가리, 몰도바를 중심으로 전 세계 침례교인들의 구호 지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보호소에서 영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아이슬란드

어, 우크라이나어로 소통하며 기도와 물품 기부,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TBM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침례교인에게 30만 달러를 기부, 6개월 동안 5개의 보호소를 지원했다. 또한 첼름 교회 보호소에 대규모 자원봉사팀을 파견하고 있다.

미키 레나몬 TBM 전무이사는 “15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이 폴란드에서 안전을 되찾았다. 전 세계 침례교인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작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그 일부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보고 있다. 이는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고 전했다.

TBM 팀의 자원봉사자인 게리 핀리는 “폴란드에 도착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얼굴에는 절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러나 폴란드인들이 부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희망과 위로가 빛나고 있음을 본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한국 드라마 보던 北고위간부 자녀도 총살...외부문화 엄격 제한”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참배하는 북한 주민들. ©Pixabay

북한내륙선교회(North Korea Inland Mission, NIM)가 3월 기도편지를 통해 최근 평안북도 평성시에서 북한 고위간부 자녀가 한국 문화컨텐츠 유입을 죄목으로 공개총살 된 사건을 전하면서 북한의 문화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줄 것

을 요청했다.

NIM선교회는 현재 북한의 상황과 관련, “외부 세계의 정보와 문화, 종교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것은 내부로부터의 개혁과 반발에 대한 움직임의 의식한 것”이라면서 북

한이 2020년 12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한데 이어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까지 만든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선교회는 “북한은 이렇게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고 올해 1월 중순 평안북도 평성시에서 20대 청년 남녀가 공개총살을 당했는데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고 유통한 고위간부의 자녀”라면서 “이전 같으면 고위간부의 자녀라면 적당히 넘어갔겠지만 지금은 간부나 일반 주민 할 것 없이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선교회는 “김정은과 북한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단속을 극심하게 강화하는 가

운데 이로 인한 처벌들이 계속되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면서 “문화의 변화는 자연스럽고 도리어 사회의 다양성과 발전을 위해 잘 이끌어 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북한 정권의 독재정치 속에 경직된 모습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북한 당국의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고 촉구했다.

또 선교회는 기도편지를 통해 현재 코로나로 인해 북중국

경이 폐쇄되고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북한선교 단체들이 중국에서 진행하던 탈북민 구출사역이 정체상태에 있다고 전하면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 팔려간 탈북여성과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평강공주 사역’을 펼치고 있는 ‘통일소망선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며 이들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대원 기자

**헤어 컷의 명망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우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중추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 고품질 아연 크롬
- ▶ 홍화씨유
- ▶ 달맞이꽃 중추추출물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러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체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입니다.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과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결합시켜 시킨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흡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Tax**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영적승리를 위한 임마누엘 교회로(2)

여호수아 7:1-15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중략)...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 4. 임마누엘을 위한 수순 지시(指示)

본문 10-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었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聖潔)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대로 제비를 뽑는데 아간의 손에 걸렸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16:33)”

여호수아 7:19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한 것은 아간이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아이성 공격 시, 36명을 죽게 한 살인죄와 하나님의 성호와 권위를 능멸한 죄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거역한 죄로 죽을 지경에 몰리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아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모시게 하므로 아간이 짓밟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켜 드리려 애쓰는 모습을 잊지 마시다. 결국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실토했고 그가 훔쳤던 성물과 개인 소유물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 당하고 불태워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함께 처형된 것은 그 가족들이 가장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심판의 형벌이 임하기 전에 자복하라고 권하고 회개게 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공범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수 7:24-26).

돌로 쳐 죽게 한 후 화형까지 한 것은 아간과 그의 가족의 죄가 임마누엘을 원하시는 광야 교회에 개인이 지은 죄로 공동체 전체에 연대적 징벌을 당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몸 된 교회들에게 절대적인 성결(聖潔)을 강조하심인 줄 깨달아 임마누엘교회들이 되어 승리와 성공을 보장 받으시라.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시설이 화려하게 고급으로 장식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영적 소망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흥 도시에 백인들이 새 예배당을 크고 깨끗하게 잘 지어서 매 주일 백인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 도시에 직장을 얻어 온 한 흑인 청년이 첫 월급을 받게 되어 주님께 눈물겹도록 감사해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십일조 봉투와 감사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 선 분들이 “너 어디를 들어가느냐?” 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니 “흑인이 어떻게 감히 우리 예배당에 들어가다니” 어렵다며 두 사람이 그 청년의 팔을 하나씩 붙잡고 들다시피 끌고 교회 정문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 때 그 청년이 헌금 든 봉투 2개를 내밀며 “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니까 내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 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으나 흑인의 거지 같은 돈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있겠느냐며 위협하듯 물리쳤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설교)이라도 들어야겠다고 강단 가까운 담 밖의 나뭇가지에 올라 귀를 기울여봤으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언덕에 있는 나무 밑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탐독하다가 서늘함에 통곡이 북받쳐 한없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나타나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하시기에 “저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려고 저 교회에 갔다가 흑인이라고 쫓겨났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슬퍼 말라 나도 저 교회에서 오래 전에 쫓겨났단다. 그러나 너에게는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은 화려한 예배당보다 진실한 신앙인과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와 흠친 금, 은, 외투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불살라 제거함으로 백성들이 다시 성결케 되어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을 대파(大破)하고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매시매사(每時每事)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재확인(再確認)하면서 임마누엘 주님의 지시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임마누엘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임마누엘 하실 때 승리와 성공을 보장 받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의 최첨단시설(M.A.) 신학박사, 선교학박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8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i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재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취급증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l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헌정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안기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112  
admin.kor@itsla.edu www.itsla.edu

강준민 칼럼

# 문제 속에 담긴 기적의 씨앗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가 보고 싶다면 무덤에 가 보십시오. 살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인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석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인생 여정에서 저는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쉽지 않았습니. 하지만 돌이켜 보면 문제가 축복이 된 적이 많습니다.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석하고 반응할 때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문제 해결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문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문제에 압도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 속에 담긴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두려웠습니다. 문제가 싫었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또 문제구나”라는 식으로 반응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

에 지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수 1:9; 사 41:10)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중에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임한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작으면 기적이 작습니다.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큼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문제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환영하게 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도피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함으로써 해결됩니다.

둘째,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문제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과장합니다. 가나안 거인은 거인들이며 그들 자신은 메뚜기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같다고 말합니다(민 13:33). 문제는 과장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그런 까닭에 문제를 조용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조용히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문제를 조용히 바라보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의 해결책도 떠오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요함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통찰을 낳습니다.

셋째,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조용히 바라보

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아주 용기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그것이 야기되었을 때의 사고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볼 때 전에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책이 떠오르게 됩니다.

넷째, 문제가 찾아오면 해결책 중심의 사고를 하십시오. “왜”라는 질문을 짧게 한 후에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십시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느냐에 대한 질문을 너무 오래하지 마십시오. 문제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또한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바로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해결책 중심의 사고를 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시험 문제를 받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는 해결책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가나안 거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문제 속에는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십시오. 문제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목사  
박상원 목사

그의 말을 듣자니 무시당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다윗 왕은 불구대

천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죽이지 않았다. 더구나 다윗은 사울더러 “내 아버지여”라고 존중해 주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겹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삼상 24:11).

나는 천만 번 죽더라도 내 목을 치려고 달려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목을 베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목전에 있는 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나처럼 천만 번이라도 죽이고 싶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었다. 그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 사울 왕과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

하시지만, 용감하게 죽기보다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기 뜻대로 용감하게 죽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전인 육신을 희생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흑독한 신앙 훈련을 받아야 했는지, 내가 육신을 보존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하나님은 이미 자녀 삼을 이들을 준비하셨다

도적질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니 모두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도적질하고 싸움질하지 말자는 소극파들의 강력한 충고에 나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다. 그런데 막상 도적질과 싸움질을 그만두니 몸도 마음도 어찌나 편안한지 그동안 그 고달픈 일을 어찌 하며 지냈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이중삼중으로 겹겹이 둘러싼 경비망을 뚫고 구리 한 덩어리를 들고 나올 때면 온몸이 땀으로 젖곤 했다.

싸움질은 또 어떤가? 비록 약체이긴 하나 개미 떼처럼 달려드는 공산군과 2~3분만 격전을 벌여도 온몸에 힘이 빠져 도망칠 기운도 없었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다양한 기독교정보

#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2022년 가을학기

###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거짓말을 그치라

어느 커다란 평야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양 떼를 데리고 언덕 풀밭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 말로는 마을 뒷산에 굉장히 난폭한 늑대가 있어 사람도 해친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심심하던 차에 큰 소리로 거짓말을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양을 물어간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일제히 달려왔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년은 거짓말이 재미있어 또 늑대가 왔다고 외쳤고 또 한 번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 수도 여러 마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울면서 고함을 지르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

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결국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거나 도망을 쳐버려서 한 마리도 남지 않는 큰 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란 얼핏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늘도독이 소도독 된다는 옛 속담처럼 농담 같은 사소한 거짓말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펴는 일본 정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옛날 꿈 많은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참상을 정말 어렵게 고백했는데 일본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정부는 강제연행이 없었다며 성실히 사과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노합니

다. 거짓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만든 6.25전쟁을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주장하거나, 중국 정부가 한복이나 김치, 삼계탕, 관소리 같은 의복과 음식, 문화를 비롯한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펴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거짓된 일은 반복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짓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과 파멸을 말씀하십니다. (롬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이기고 정직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이후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하면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피와 잔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Not I, But Christ' 로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십니다.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이 보여도 정직의 대가는 반드시 하늘의 복으로 나타나는데,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전승이 일어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거짓말을 그치고 진리를 드러내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

보혜사(保惠師)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리스 단어의 번역인데, 이는 돕는 자,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중보자와 은혜 베푸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먼저 예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을 일컫는 이름으로 보혜사를 사용합니다. 주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였고, 그분이 "진리의 영"(요 14:16-17)이라고 거듭 밝힙니다. 아울러 이 보혜사는 예수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운데 내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점의 하나는 성령은 인격(人格, person)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성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의 인격성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인격이라는 것은 그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며, 교제와 사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의 동행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자요 권세자가 우리 각 인격과 동행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말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내주와 동행은 요엘의 예언 속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민 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을 볼 것이며"(을 2:28-29).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언과 환상과 비전이 주어집니다. 환상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깨달음과 가르침이 주어지지만, 교회나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푸십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70년 후에 민족이 귀환할 것을 알았고, 다니엘은 이 70년이 거의 다 된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동행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일과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토레이 목사(R.A. Torrey, 1856-1928)는 유명한 성령론 강사로서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가르치고 무수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한 집회 후에 4마일 정도 떨어

져 사는 친척에게 간다고 약속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날이 어두워서 생각해보았습니다. 폭풍우가 시작되는 밤, 그는 친척이 밤새도록 기다릴까 걱정되어 약속을 지킵니다. 번개가 칠 때만 순간적으로 보이는 해변 절벽 길을 걸어, 결국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성령의 동행을 믿었으므로, 어두움을 뚫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집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자매는 늘 어둠을 두려워하여 침실에 드는 것을 거절하다가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성령의 동행을 믿는 믿음은 빠르게 전염되어 믿는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능력의 현장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내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준자 Rate 월 보험료/시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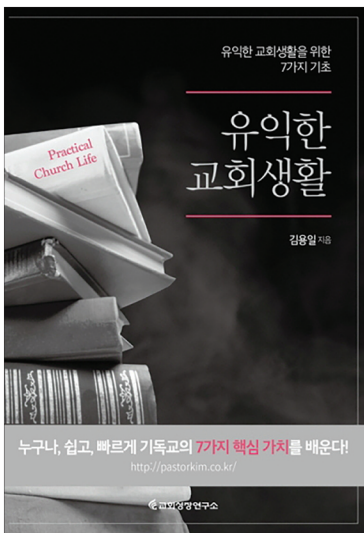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 김용일 목사 저서 <유익한 교회생활>

## 유익한 교회생활을 위한 7가지 기초



김용일  
교회성장연구소 | 176쪽

유익한  
교회생활을 위한  
7가지 핵심 가치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운다!

크리스천은 교회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교회생활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런 이들을 위해 저자 김용일 목사(하남 새빛교회)가 7가지 기초를 저서 <유익한 교회생활>에 정리했다.

이 책은 △회개(고백): 기독교인(제자,교인)이 되는 시작 △심판: 기독교의 역사관 △선택: 천국과 지옥 △제자: 복음을 믿음 △교회: 부름받은 공동체 △말씀: 구원과 온전케 함 △의무: 시간, 물질, 마음의 헌신(제자의 3대 의무)의 일곱 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복음'이 눈길을 이끈다.

김 목사는 "최후의 심판 날, 천국에 가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다. 신약의 첫 네 권의 책은 복음서이다. 이 책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 즉,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서가 쓰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

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와 말씀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민수기21장을 보면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외우고 암송해야 할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시에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 있다.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다. 교인, 신자, 성도, 혹은 무엇이라고 부르든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자기 포기를 할 생각이 없다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교회를 해롭게 할 수 있다"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했다. 오해해선 안 될 것이, 돈은 악의 뿌리가 아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재물은 중립적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 목사는 이어 "물질에 관한 설교나 가르침이 귀에 거슬린다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선 안 된다. 준비된 후에 직분자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스스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은 경우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이다"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극한 것이 있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즉 누가 높은가?'하는 것이었다. 마

태복음 18장 3-4절을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였다. 우리도 그 분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원한 제자인가? 제자훈련을 받으면, 영원한 제자인가? 그렇지 않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오천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아 왕으로 삼고 싶어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길을 가셨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제자로 따른다고 영원히 따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열두 제자들도 다 충성된 제자는 아니었다"라고 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 같은 선한 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신간] 사이좋은 부모생활

도서출판 아르카가 황지영 대표(나무아래상담코칭센터)의 신간 <사이좋은 부모생활>을 출간했다. 고신대학교에서 상담과 부모코칭을 가르쳐온 저자는 '사이좋아야 할' 관계의 문제를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의 해답으로서 되살려내며 개인의 특별한 체험과 평생에 걸친 연구와 상담 경험을 모두 정리해 이 책에 담아냈다.

저자는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한국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과 물리적·감정적 거리가 생겼고, 이전보다 부모

의 역할을 습득하기 어려워졌으며, 부모의 직업이나 자녀의 학업 등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되었어도 막상 부모 역할 앞에서는 당황하고 우왕좌왕한다"라며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법을 찾고 보고 배우고 익힌다. 그런데 자녀 양육의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성경이 모든 지혜의 원천인 것처럼 자녀 양육의 지혜도 성경에 있으며 나 역시 그 지혜를 성경에서 찾았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성경 이야기

에 들어가기 전에, 자녀교육에서 부모 각자의 양육 방식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부모인 우리 역시 부모에게 양육되었고, 부모들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녀를 대하고 양육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답습하고, 만약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라며 "피양육자로서의 경험이 이렇게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사실 둘은 전혀 다른 경험이다. 부모 자신이 어렸을 때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양육 태도와 성숙도가 달라지는 건 일반적으로 맞다. 하지만 경험한 대로

나 다짐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매우 미성숙한 부모는 자녀를 망가뜨리기도 한다"라고 했다.

이어 "30년도 더 지난 지금 깨닫는 것은, 자녀 교육은 결국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다.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부모가 먼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하고, 주님 안에서 자신감 있고 행복해야 한다. 한마디로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말이다."라고 했다.

한편, 황지영 대표는 숙명여자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상담학 강의 전담 교수를 역임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츨스트롬 대학원대학교의 교육심리상담 박사과정



을 수학했다. 현재 나무아래상담코칭센터 대표로 섬기고 있으며 고신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겸임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 페트라대학교 학생 모집 유학생 편입학 가능

문의  
김경식 교학처장  
213-909-3579

WPC세계예수교장로회  
(World Presbyterian Church General Assembly)

LA 중앙 총노회 고시부  
(LA Central Synod Qualification Exam Office)

총노회장 : 김정호 목사 (직인생략)  
고시부장 : 김성권 목사 (직인생략)  
고시부서기 : 노명구 목사 (직인생략)



## WPC 강도사, 목사 고시 공고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 총노회에서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가 아래와 같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1. 고시 일자 : 2022년 7월 11일(월) AM 11:00
2. 고시 장소 : 조이풀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  
(866 S. Westmoreland Ave. #200 LA, CA 90005)
3.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 본 총회 헌법 제13장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총회가 인정(인주)하는 신학교 (M. Div)를 졸업한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4. 목사고시 응시자격 : 본 총회 헌법 제14장 제1조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5. 원서 교부 및 접수 일자 : 2022년 4월 18일 ~ 2022년 5월 20일(금)까지
6. 강도사 고시 과목 : ○1제출 과목 : 논문과 주해 및 설교  
○2시험 과목 :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 면접
7. 목사 고시 과목 : 12신조, 교회 헌법(권징 조례, 예배 모범, 정치), 목회학, 면접

문의처 : 고 시 부 장 김성권 목사 (213-503-9943)  
고시부 서기 노명구 목사 (213-505-3720)  
타 교단도 강도사고시 문의 요망.

\* 자세한 사항은 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www.petrauniversity.org

이어령 교수의 회심 이후 15년, 책으로 만나다 (1)

편안하게 떠난 이어령 교수 “시와 소설 읽듯 성경 읽으면...”

지난 2월 26일 딸을 따라 하늘로 떠난 이어령 교수는, 2007년 회심 후 영성에 대한 많은 글들을 펴내며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일깨웠다. 최고 지성인이자 무신론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것은 당시 큰 울림을 줬다.

인론들에 따르면 장남 이승무 교수(한예중)가 전한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은 늘 바랐던 대로 평화롭고 편안했다.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 진통제도 거의 맞지 않았는데, 숨을 거두기 한 시간 전 손주들과 영상 통화가 걸려와 웃으며 인사를 건넬 정도로 마지막까지 의식이 또렷했다.

이어령 교수는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으로, 허공을 아주 또렷하게 30분 정도 응시하면서 ‘죽음마저 관찰하는 듯했다’고 한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 후 가족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 숨이 점점 열려지면서 하늘로 떠났다.

이어령 교수는 회심의 ‘과정’과 그 ‘전후’에 대한 단상을 기독교인이 된 이후 첫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에 풀어놓았다. 그는 신이든 인간이든 기성의 모든 권위를 거부하면서 살아온 무신론자였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바친’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실명 위기의 딸이 기적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기로 한 3년 전인 2004년 홀로 일본 교토로 날아가 유학하던 시절 ‘무신론자의 기도’를 쓰면서, 신을 향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어령 교수는 당시 딸의 실명 위기에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매일 우리는



이어령 교수.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라며 “만약 민아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라고 기도했고, 이 기도는 이뤄졌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되어, 자신의 손으로 키웠던 외손자를 잃었다. 그 아이가 병명도 모른 채 의식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외손자가 그렇게 떠난 후, 그는 눈물과 함께 조용히 성경을 덮었다고 한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젊은 아이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도를 드리지도 주님을 찾지도 않던 그는 어느 날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속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한다. 사망이 죄의 값이라면 갓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시마 신부는 “아이보다 더 순결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성경을 펴고, 욥과 하박국, 예레미야애가 등을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어령 교수는 이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외람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살던 것을 끊고 떨어지는 추락의 경험과 아픔이 없으면 주님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말로 모두 끊어버리고, 모두 버려야 한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모와 가정을 버리시고, 고향을 버리시고, 모든 가진 것을 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버리셨다. 우리는 구하려고만 하는데, 그분은 계속 버리셨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너무나 절실히 고독이 왔을 때, 절대 나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즉 영혼이 갈구할 때, 목마를 때, 수돗물 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라며 “물론 그런 영혼의 아픔과 갈증이 교회에 간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하지만 식당에 갔을 때 만날 맛있는 음식, 입에 맞는 음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갈 수밖에”라고 전했다.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에서는 이러한 이어령 교수의 생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펼쳐놓았다. 2011년 나온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의 개정판으로 세례 10주년인 2017년 출간된 이 책에서, 그는 “영성을 얻기 위해 지성을 버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라고 정리했다.

세례받은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의문과 믿음의 문지방 사이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나와 같이 문지방 위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에게 꼭 읽히고 싶은 욕심에 개정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 그는 “성경은 종교 이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요 소설이요 드라마로 존재해 왔다. 또한 생생한 철학을 담은 생명의 책으로 존재해 왔다”며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영어의 바이블은 그리스어로 ‘책’을 뜻하는 ‘비블로스(biblos)’에서 나왔다. 성스럽다(聖)거나 경전(經)이라는 뜻이 아닌, 그냥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 담긴 것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역사의 골짜기를 넘어 모든 이의 손과 가슴에 가닿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나의 암호처럼 생소한 아이콘으로 우리 앞에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경건함으로만 존재하던 그 책이,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책’으로,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신학이나 교리는 잘 몰라도 문학으로 읽는 성경, 생활로 읽는 성경이라면 제가 거둘 수 있는 작은 몫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학적 레토릭과 상상력, 그리고 문화적 접근을 통해 빵과 밥과 떡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령 교수는 정통적 성경 풀이와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던 자신의 성경 읽기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새롭게 개역을 하고 문어체를 구어체로 고쳐봐도, 성경은 시와 소설처럼 그냥 읽기는 힘이 든다. 그냥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왜곡을 범하기 쉽다”며 “디테일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대상을물을 뛰어넘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를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어렵던 말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 우리가 쓰러졌다 일어서는 법과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수사법과 등 돌린 사람을 포용하는 너그러운 몸짓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식탁에는 우리의 배를 불리는 밥만이 아니라, 빵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줄 참으로 눈부신 햇살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대웅 기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최상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 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리스팅 전문.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케를리. Cell 714.345.4989.

OPEN 23주년 기념 세일 리모델링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단독주택에 ADU Second Unit 건축. Water Damage 보수공사.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500-8000 3400 W Olympic Blvd., #204, L.A, CA 90019 (구, 로랜드 빌딩). (714)294-4336 8251 Roland St., #E, Buena Park, CA 90621. https://abundancedesignandconstruction.com

# 가족나눔 고난주간 금식 캠페인

고난주간 금식 캠페인은 케네디와 같이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된 의미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케네디 영상을 보고

매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300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매월 \$20씩 후원**을 통해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누리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려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6-7

## 굶주림에 흙을 먹는 아이들

9살 케네디는 3년전 병으로 부모님을 잃고 어린동생 다섯명과 중풍과 치매로 잘 걷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홀로 돌보고 있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구해온  
고구마 3개는  
온 식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계속되는 굶주림에 케네디와  
동생들은 산에 올라 나무에 붙은  
흙으로 허기를 달랠니다.



케네디 영상보기

영양식 지원문의

**877-499-9898**

[www.goodneighbors.us](http://www.goodneighbors.us)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기독교 신앙고백(Confession of Faith Good Neighbors)을 통해 기관의 최고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Soli Deo Gloria)에 두고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세계 48개 국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특히 국제구호 개발 NGO로서 유엔경제사회 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로부터 최상위지위인 포괄적 협력지위를 부여 받아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와 파트너들과 함께 미션과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